



주천 성당

설립 일. 2001. 1. 16.

주보성인. 성 요셉

2024년 11월 10일

연중 제32주일
(평신도 주일)

제1독서

1열왕 17,10-16

제2독서

히브 9,24-28

복음

마르 12,38-44



들빛바로가기

www.wj catholic.or.kr

화답송

◎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 주님은 영원히 신의를 지키시고, 억눌린 이에게 권리를 찾아 주시며,
굶주린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네. 주님은 잡힌 이를 풀어 주시네. ◎

○ 주님은 눈먼 이를 보게 하시며, 주님은 꺾인 이를 일으켜 세우시네.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이방인을 보살피시네. ◎

○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나, 악인의 길은 꺾어 버리시네.
주님은 영원히 다스리신다. 시온아, 네 하느님이 대대로 다스리신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영성체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네.

나는 어떤 평신도 인가?



박창건 미카엘 /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제57회 평신도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는 어떤 평신도인가?'라는 깊은 물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신앙 여정을 돌아보면, 유아세례를 받은 후 주일학교와 학생회를 하며 어린 시절에는 주일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또 사회에 나와서는 바쁘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적도 있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처럼 수동적이고 미숙한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일까?”

평신도는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하느님의 백성입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고유한 사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지만, 많은 분들이 조용히, 드러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조용한 신앙생활도 물론 소중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한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더 높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제가 처음 봉사활동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는 두려움이 컸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실수하면 어찌지?” 하는 걱정이 앞섰죠. 하

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예상치 못한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봉사는 제게 부담이 아닌 기쁨이 되었고, 신앙의 깊이를 더해주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코로나19 이후의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신자 감소와 성사 참여율 저하는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말씀하신 “세상의 영혼인 평신도”로서, 우리는 더 이상 수동적인 자세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신앙인이 되기를 요청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가 받은 은총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7년 세계청년대회 한국 유치와 내년 원주교구 설립 60주년을 앞둔 지금, 우리에게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성경 공부, 단체 활동, 피정 등 다양한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느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관한 말씀을 들으며 우리 자신의 하느님에 대한 봉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능동적이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시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소명을 주셨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은총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본당을 소개합니다

성령의 불꽃처럼 ... 신앙에 열정이 ...



주천 성당

주천 성당은 공소에서 시작되었다. 구전에 의하면 1940년부터 주천면 도천리 별말이라는 마을에서 이재수가 용기를 구워 생활하면서 천주교를 전파하였다고 한다. 그 후 누님으로부터 전교받은 이성호가 주관하여 1957년 신자 약 10명으로 용소막 성당 관할 공소로 인가를 받았고 본인의 집 사랑방에서 공소예절을 드렸다. 1959년 영월 성당으로 편입되었다가 교통관계로 1960년 다시 용소막 성당 공소로 되었고, 본당에서 심의철 전교회장이 파견되었다. 1961년 이 바드리시오 신부가 교회부지 342평을 매입하여 주었고 신자들은 손수 흙벽돌을 만들어 흙벽돌 함석조 30평 규모의 공소건물을 건립하였다.

1969년 7월 1일 의림동 성당 관할로 되었고 1986년 7년 이내에 성당을 건립할 목표로 적금을 불입하기 시작하였다. 1988년과 1990년 대지를 추가 구입하고 1992년 2월 성당 건립추진 위원회가 발족되었다. 같은 해 5월 착공하여 1993년 8월 30일 완공, 10월 20일 축성미사를 봉헌하였다.



▲ 본당 축성 미사

2001년 1월 16일 본당으로 승격되어 주천면, 무릉도원면, 한반도면 일대를 관할하게 되었고, 1대 고정배 신부가 부임하였다. 2005년 3월 11일 새 성전 기공 미사를 봉헌하고 새 성전 건립을 시작하여 2006년 6월 21일 성전 봉헌 미사를 드렸다.

- 2대 이재희(안셀모) 신부님
- 3대 유영구(베드로) 신부님
- 4대 박용식(시몬) 신부님
- 5대 박준혁(프란치스코) 신부님
- 6대 김창수(안드레아) 신부님(현)



▲ 요셉의 집

깔끔한 흰색 대문을 들어서면 주차장이 있고, 쉼터인 요셉의 집이 보입니다. 요셉의 집에는 차와 도서가 구비되어 있으며 담소를 나눌 탁자와 의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이 괴로울 땐 들어와서 성경책이 펴있는 곳 부터 몇 줄씩 릴레이식으로 원하는 만큼만 작성하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위안과 여유가 생길 겁니다.

요셉의 집 꽃밭에는 계절에 따라 꽃들이 만발하고 바로 옆 성모님께선 5월의 장미 꽃밭에서 환하게 웃으십니다. 계단을 오르면 좌측 1층은 사제 집무실, 2층은 사제관 건물입니다. 우측으로는 성당 입구이며, 평일에도 성당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누구나 성체 조배하며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고요한 성전입니다.

저희 성당은 토요일 저녁 미사에 생활성가를 합니다. 우쿨렐레 강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귀촌하여 명동 성당 복음화 학교를 다니면서 피정 중에 하느님을 만나고 복음성가를 부르는 은사를 받아 각종 피정 음악 봉사활동을 하시고, 주천 성당에서 생활성가를 열성을 갖고 연주했습니다.

김재중(요셉), 김윤석(베로니카) 부부가 드럼, 건반, 기타로 미사 반주에 열성을 다한 결과, 여름 캠핑 오신 분들이 미사 참례 하며 많이 좋아하셨습니다. 점점 신자 수가 늘다가 코로나로 인해 쉬는 교우들이 늘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귀촌하는 분들의 증가로 본당 교우 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본당 신자 대부분이 고령이어서 소공동체 구역 모임이 잘 이뤄지지 않는데 김창수(안드레아) 신부님께서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미사가 끝나면 쭈우욱 둘러서서 맛있는 커피도 마시며 아기자기한 가족 분위기로 이끄십니다.

요셉회와 안나회도 발족했으며, 매주 금요일 구역 미사를 봉헌합니다. 신부님께서 100점짜리 신앙인을 만들겠다고 매주 구역미사를 다니시며 교육을 하십니다. 또한 매달 첫 금요일은 기도 모임 날입니다. 빨간 카페트를 깔고, 빨간 초를 켜 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기도합니다.



▲ 기도 모임

앞으로 저희 주천 성당이 날로 발전하여 성령의 불꽃처럼 신앙에 열정이 타오르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과 똑같은 미사 전례가 있었나요?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미사 전례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미사가 예수님의 최후 만찬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대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하시며 아버지 하느님과 세상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누신 최후의 만찬이 오늘날 미사 전례의 최초의 모습입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 또한 한자리에 모여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으며 기도하고 빵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였습니다(사도 2,42-47 참조). 이렇게 식사를 겸한 성찬례는 1세기 말이나 2세기 초엽까지 이어 오다가, 신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많은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불편해져 점차 식사와 성찬례가 분리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찬례는 음식을 나누는 식사 형태에서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기념하고 재현하는 의식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식사가 미사에서 분리되고 그 자리에 독서와 강론으로 이루어진 말씀 전례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4세기에는 종교 자유가 이루어지고(313년), 그리스도교가 로마제국의 국교가 되면서(380년) 전례가 급격히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신자 수가 급증하면서 미사 집전 장소가 작은 규모의 가정집이나 집회에서 대규모의 성당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분향, 행렬, 전례 복장 등 사회의 예식과 복장들이 도입되었고, 미사 집전 중심 장소도 나무로 된 식탁에서 돌로 된 큰 제단으로 변화하였습니다.

2세기 후반부터는 라틴 말이 전례 언어로 자리 잡아 오랫동안 사용되다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부터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의 미사 형태는 시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여러 부분이 첨가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무래도 마귀 들린 게 틀림없어요.”



정인준 파트리치오 신부 / 원로사목

시골에 사시던 할아버지가 중풍이 걸려서 치료하기 위해 있던 논과 밭을 팔고 시내로 나왔지만 그 돈으로는 전세도 얻지 못해 산동네에 방 한 칸을 얻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병은 점점 심해서 대소변 가리기도 힘들었고 할머니도 병수발 하는 것이 점점 힘에 부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방에는 냄새가 심했고 파리까지 잔뜩 꼬이는 것입니다. 본당 병자 영성체하는 날, 착한 보좌 신부는 참다못해 그 할아버지 집에 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 할아버지 집은 본당 신부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편하신 몸으로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성체를 모시는 모습에 저는 늘 감동을 했습니다. 몸이 불편하시니 편하게 하시라고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을까요? 할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 후 주일 미사를 빠지지 않던 할머니가 아주 오랜만에 수척한 모습으로 성당에 오셨습니다. 성당 한 칸에서 내내 기다리던 할머니가 머뭇거리다가 “신부님, 아무래도 제가 마귀가 들린 것 같아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머니 말이 미사에서 말씀의 전례가 끝나고 성찬례가 시작되면 제대 뒤편이 열리며 하늘에서 수많은 마귀 떼가 날아다니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무서워 미사 끝날 때까지 눈을 감다시피 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일 미사에 못 나오다가 이번에 혹시나 왔는데, 똑같은 일이 벌어져 두렵고 떨린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저것 할머니에게 물어보고 나서 “할머니, 날아다니는 것은 마귀들이 아니고 천사들이에요. 원래 미사의 참모습을 보신 것이지요.” 이사가 예언자가 하느님의 집에서 본 현시 장면(이사 6,1-3)을 들어 설명해 드렸습

니다. 하느님 어전에서 서랍들이 날아다니는 것과 미사에서 천사들이 ‘거룩하시도다’를 외치며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설명하며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동안 영감님 병수발을 열심히 하셨다고 주님께서 선물을 하신 것이고 본당 신부도 결다리로 낀 것이지요”. 본당 신부의 그런 말을 듣고 할머니는 기뻐하며 돌아갔습니다. 그 후 미사 끝나면 본당 신부가 “오늘도 마찬가지로요?”라고 물으면 “예”하고 대답하는 비밀스런 공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도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당 신부에게 별난 습관이 생겼습니다. 미사성제 중에 ‘거룩하시다’의 성가가 들려오면 제대 뒤를 슬쩍 살피는 이상한 버릇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너무 신비스러워 알지 못하는 일들을 저는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며 먼지와 잿더미에 앉아 참회합니다.”(욥 42,3,6)

제자들을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보다 ‘철부지들(네피오이스 νηπιους / 마태 11,25)’이라고 하신 주님 말씀대로 사제는 ‘완전한 사람’이기보다 늘 회개하며 끊임없이 정진해야 할 부족한 사람이지요. 사랑하며 기도해주는 교우들이 있어 사제는 오늘도 주님과 교회를 위해 옳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우들을 통해 깨달았던 몇 편의 글을 마치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을 위해 사제들과 함께 커피와 차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강의, 고해성사, 면담, 성체조배를 위한 자리 ‘행복한 가톨릭 카페’”를 오늘도 꿈꾸고 있습니다.

교구장 동정



11월 10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봉산동 성당)
12일(화)~14일(목) 한국카리타스협회 워크숍(전주교구 치명자산성지 평화의 전당)
17일(주일) 사목방문 및 견진성사(성내동 성당)

축하드립니다

영명일 11월 11일(월) 김준래 마르티노 신부



2024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기획피정 일정 안내

- 신청형 피정 - 신청형 피정은 모두 선착순입니다.
- ▶ 피정비 2박3일 : 16만원(후원회원 8만원)
- ▶ 피정 신청 및 문의 043-651-4563
- ▶ 매일 11시 순례자 미사 (연중무휴)
- ▶ 자원봉사 후원회 모집 T.043-651-4564 M.010-7613-4564

2박 3일 피정 일시 및 강사진

- ▷ 11월15일(금)~17일(주일) : 허규 베네딕토 신부(서울대교구)
- ▷ 12월20일(금)~22일(주일) : 이성효 리노 주교(수원교구)

☀️전주교 원주교구 순례길 「님의 길」 가을 순례 프로그램

✓ 짧은 순례 구간(반만 걸어요. 버스지원, 기념품 제공, 단체신청 가능)

날짜	길 이름	이번에 순례하는 구간(거리, 시간)
11월 16일	네 공소길(창촌공소 ~ 옛구재공소)	오크벨리 ~ 옛 구재 공소(4Km, 1:30)
	성사길(용소막성당 ~ 배론성지)	숲속의원 ~ 배론성지 (4.5Km, 2:00)
	서지고개길(서지마을 ~ 귀래공소)	서지마을 ~ 사기막(10.3Km, 2:30)
12월 3일	최 비르지타 순교길(대안리공소 ~ 원동성당)	대안리공소 ~ 무실동 성당(10Km, 2:30)

✓ 순례 피정 순례영성을 만나는 무료피정 (버스지원, 기념품 제공, 단체신청 가능)

일시 : 11월 20일(수) 16시 ~ 21일(목) 13시
장소 : 횡성 성 도미니코 수녀원
주제 :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만날까?
강사 : 이우갑 베드로 신부(원주교구 순례담당)

✓ 참가 신청

- ▶ 전화(문자) 신청 : 010-5719-3217
서지마을 033-745-3217
카톡 : 번호 저장 후 서지마을 카톡 등록 후 신청
- ▶ 홈페이지 신청
<https://sunraegil.seoji.net/board/pilgrimage2>



순례길 봉사단 미사

일시 : 11월 13일(수) 11시
장소 : 원주교구 성지 서지마을
문의 : 010-5719-3217

교구 알림

서울 성소후원회 미사

때 : 11월 12일(화) 14시 / 곳 : 명동성당 소성당
문의 : 성소국 033-763-4220

성서사십주간

비대면 : 11월 12일(화) 가톨릭센터, 20시
대면 : 11월 12일(화) 태장동 성당, 10시
13일(수) 서부동 성당, 19시30분
14일(목) 횡성 성당, 20시
문의 : 복음화사목국 성서부 033-765-4226

하반기 청소년 사목자 연수

때 : 11월 12일(화)~14일(목)
곳 : 강화 일만위순교자 피정의집
주제 :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골로2:7)
대상 : 청소년 사목 중인 사제, 수도자
문의 : 청소년사목국 033-765-4228

수험생 부모 피정

때 : 11월 14일(목) 9시30분~15시30분
곳 : 무실동 성당 / 준비물 : 미사준비, 목주
문의 : 가정사목국 033-765-4225

청년성서 하반기 재교육 연수

때 : 11월 17일(주일) 11시~16시(10시30분 접수)
곳 : 가톨릭센터 200호
대상 : 청년성서 하늘나래 가족, 관심있는 청년
참가비 : 1인 10,000원
신청 : 11월 10일(주일)까지 F. 033-765-4223
문의 : 청년·대학사목 033-766-4228

고3, 일반 예비신학생 지원반 모임

때 : 11월 17일(주일) 11시
곳 : 양업사제관
문의 : 성소국 033-763-4220

미사·피정·연수

이주민 미사 및 한글공부

때,곳 : 11월 10일(주일) 12시,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문의 : 보건·이주민사목 033-766-1267

대학 종강총회 및 미사

때 : 11월 11일(월)부터 / 곳 : 각 단위대
문의 : 청년·대학사목 033-766-4228

1박2일 단기 성경묵상회

때 : 11월 12일(화) 13시~13일(수) 16시까지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강사 : 김현우 바오로 신부(인천교구)
문의 : 010-8919-9731, 010-2312-9654

성 골롬반 외방선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

때 : 11월 13일(수) 14시
곳 : 원동 주교좌성당 만남의 방

밝음신협

故지학순주교님 도움으로 시작됨
예탁금, 적금대출상환, 카드단말기공제
(보영)온누리상품권
본점 : 033-745-4571 단관 : 764-4575
무실 : 033-748-6900 혁신 : 735-4575

변호사 최윤환 법률사무소

최윤환(암브로시오), 신주연(글라리)
민사 · 형사 · 가사 · 파산 및 회생
T.033-747-8872
무실동 신법원청사 옆

명성인쇄 · 광고

최경택(요아킴), 이안나(안나)
칼라인쇄 · 책자 · 봉투 · 기념품
광고 · 판촉물 · 팸플렛 · 카렌다
T.033-747-0373 교구청 뒤 중앙로24

세무사 이해경 사무소

이해경(도마), 박영선(리디아)
가정대행·세금신고·이의신청
교구신자 무료 세무상담
T.033-743-0126 원주세무서 뒤

의료법인삼산의료재단 삼산병원

박상기(스테파노)
병원(관절/척추, 수술/비수술)
무릎 줄기세포/인공관절, 내과/건강검진
MRI/CT/초음파)
T.033-749-9900 원주시 혁신로 5

연세치과

윤석현(요셉)
임플란트, 잇몸치료, 충치치료
예약상담 : 033-733-7505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 2층
마트주차장 무료이용

휴표휴침대 · 인까사
금성침대 · 양성국 갤러리

송영범(이시도로), 민병욱(수산나)
T.033-747-5757
만중가구단지 내

남부·밝은안과

박찬(루카), 권혁연(프란치스코)
안종합검진, 노안, 사시 및 약시
안건조증, 눈물흘림, 눈꺼풀꺼짐
T.033-766-9100
남부시장 옆-세경아파트주차

가톨릭 제약인회 미사

때 : 11월 13일(수) 18시30분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보건·이주민사무 033-766-1267

성체조배회 월례미사 및 성체조배

때 : 11월 14일(목) 10시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가경사무국 033-765-4225

로사리오 기도회

때 : 11월 14일(목) 13시30분 / 곳 : 교구청 경당
문의 : 010-5360-6327

평협 월례미사 및 회의

때, 곳 : 11월 15일(금) 18시30분, 교구청 경당, 202호
문의 : 복음화사무국 033-765-4224

가톨릭 여교사회 월례미사

때 : 11월 15일(금) 19시 / 곳 : 양업사제관
대상 : 초·중·고 가톨릭신자 여교사
문의 : 심태연 엘리사벳 010-8192-1213

원주 가톨릭병원 월례미사

때 : 11월 16일(토)

성서부 말씀의 봉사자 월교육

때 : 11월 16일(토) 10시 / 곳 : 가톨릭센터 202호
문의 : 복음화사무국 성서부 033-765-4226

레지오 마리아 전 단원 교육

때, 곳 : 11월 16일(토) 15시30분, 원동 주교좌성당

민족화해위원회 위원모임 및 평화기원미사

때 : 11월 17일(주일) 18시30분 / 곳 : 명륜동성당
문의 : 명륜동성당 033-762-2512

여성연합회 제50차 정기총회

때 : 11월 20일(수) 10시~16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대상 : 본당 성모회 및 총구역 임원
내용 : 특강·2024년 사업결산 및 2025년 사업예산
문의 : 010-7202-2474, 010-5376-5924

원주 ME 제153차 주말

때 : 11월 22일(금) 19시~24일(주일) 17시
곳 : 은총의 성모마리아 기도학교
인원 : 선착순 20부부(혼인한지 3년 이상, 성직자, 수도자)
예약금 : 10,000원
문의 : 원주ME 주말분과
010-4410-4217, 010-8591-4217

연령회연합회 하반기 일일교육

때 : 11월 23일(토) 9시30분~13시
곳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대상 : 각 본당 연령회장 및 임원
강의 : 이형호 베드로 신부(복음화사무국장)
신청 : 11월 15일(금)까지 F.033-765-4223
문의 : 복음화사무국 033-765-4224
회장 010-9542-9000

춘천교구 가톨릭회관, 위령성월 피정

때 : 11월 15일(금)~17일(주일) / 곳 : 가톨릭회관
강사 : 배광하 치리아코 신부
신청 : 11월 4일(주일)까지(선착순, 입금기준)
cccacenter@daum.net
참가비 : 2인 1실 17만원, 1인 1실 20만원
신청 131-019-838389 춘천가톨릭회관
문의 : 010-8884-5340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성경완독 : 12.6(금)~14(토)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역여행 열두 소예언서II
: 12.20(금)~22(일)
문의 :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010-3340-0201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1박 2일 : 12.21(토)~22(일)/2.14(금)~15(토)
3박 4일 : 11.28(목)~12.1(일)/12.5(목)~8(일)
8박 9일 : 11.14(목)~22(금)/12.26(목)~1.3(금)
40일 : 12.14(토)~25.1.22(수)
곳 : 문산 예수마음피정의 집
문의 : 010-4906-5722, 031-953-6932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회

때 : 매주 (금) 21시~(토) 03시
곳 : 초정성령회관 043-213-9103
강사 : 전국 유명강사
셔틀버스 : 조치원 기차역 19:00 출발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다이소 건너편 19:20출발

성소모임**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때 : 11월 16일(토) 14시
곳 : 서울 개화동 수도원
문의 : 010-3800-1579

살레시오회

때 : 수시(문의바람)
곳 : 춘천 소양로 수도원
문의 : 010-7427-4627

채용·모집·기타**2025년 가톨릭고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대상 :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원서접수 : 11월 11일(월)~2025년 2월 14일(금)
문의 :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가톨릭 원주도서관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일시 : 11월 16일(토) 10시~12시
장소 : 가톨릭센터 마리아홀
초대작가 : ‘맛있는 복음법’
이용현 베드로 신부(인천교구)
참가비 : 없음
신청 : 복음화사무국 033-765-4224
주최 : 가톨릭원주도서관, 원주교구 복음화사무국

축복된 성물의 거래에 대한 주의

최근,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물의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교회가 금하는 일입니다.
(교회법 제1171조 참조 : 봉헌이나 축복으로써 하느님 경배를 위하여 지정된 거룩한 물건들을 존경스럽게 다루어야 하며, 개인 소유인 경우에도 속되거나 부적당한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축복된 성물을 사고파는 행위에 대한 주의를 요청드리며, 사사로이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어려운 성물들을 **문화영성연구소(배론 성지, 043-646-452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교구설정 60주년 기념 청소년 해외 봉사

일시 : 2025년 2월 5일(수)~11일(화) 6박7일 / 장소 : 인도네시아 메단
대상 : 해외봉사활동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건강상의 이유 등)
예비 고1~예비 고3(2025년 기준) 청소년 20명
주제 : “희망의 순례자들”
참가비 : 1인 1,000,000원(변동 가능) 농협 317-0026-5476-11 천주교원주교구
학생 이름으로 입금 : 예) 봉사최양업, 봉사김대건
신청 : 11월 17일(주일)까지 우편 또는 E-mail : wjch-02@hanmail.net 접수
문의 : 청소년사무국 033-765-4228

* 자세한 사항은 교구홈페이지 (www.wjccatholic.or.kr-교구소식)참조.

출장부패, 이동법차, 도시락, 답례품 IN & Party (인파티) 인지열(아우구스티노) 이효진(스테파니아) T.010-8790-1309	크리스마스 여행사 성지순례 25년4월2일 조지아, 아르메니아 순례 12일 25년5월2일 그리스, 터키 순례 13일 권영국(마티아) 010-5485-0114	안경매니저 오피상(방지거), 서난희(아네스) 누진 다초점·하드렌즈 전문점 T.033-742-9901 행구동 SG 마트 T.033-742-9979 무실동 부영 APT 후문	여민한의원 성태경(스테파노), 조성지(마리안나) 교통사고 / 추나요법 / 봉독약침 T.033-766-1075 봉산동 삼익아파트 맞은편 1층	정관장(홍삼) 단구점 송봉순(안젤라) T.033-762-2305 단구동 롯데시네마 · 우리은행 옆
경성재가복지센터 남명숙(진이아가다) 어르신을 안전하게 돌봐드립니다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T.033-765-0255 · 763-0251 www.경성.kr , 관설 근린공원 인근	연세민내과 의원 염동숙(가브리엘), 민미심(엘리사벳) 국가검진지정기관(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24시간 심전도검사·면역NK세포검사 간섭유화검사(국가예방접종 위탁기관) T.033-733-7582(중앙로86) 8시부터 검진 실시	친환경 원목가구 다심마루 최인숙(마리아) 좌탁, 서랍장, 소파, 문갑, 식탁, 침대 황토석연열침대 온열소파 T.033-761-4994 관설KT정문 맞은편	착한시공하우징 백정현(임마누엘) 김진숙(클라우디아) 신축 / 각종 리모델링 전기조명 / 생활소품 일체 T.010-7384-0010 카드결제 가능	